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명의 시간 속  
으로 들어오세요.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색칠해놓은 숲속에서  
쨍하게 반짝이는 햇살 소리, 뾰드득 눈  
밟는 소리, 퍼드득 날아가는 새떼 소리,  
휘이잉 불어오는 겨울 바람에 뽁뽁 언  
손을 녹이려고 호호 불어보는 입김 소  
리, 그 안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뛰어다  
니는 킁킁 강아지 소리와 까르륵 아이  
의 웃음소리까지 들어요, 들어보세요.



지금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귀로 만나는 숲의 평화



# 귀로 만나는 숲의 평화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색칠해놓은 숲속에서 짹하게 반짝이는 햇살 소리, 뽀드득 눈 밟는 소리, 퍼드득 날아가는 새떼 소리,  
휘이잉 불어오는 겨울 바람에 푹푹 언 손을 녹이려고 호호 불어보는 입김 소리,  
그 안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킁킁 강아지 소리와 까르륵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들어요.

들어보세요.



CONTENTS

04  
Prologue



08  
숲의 선물

고요한 숲속, 자연의 속삭임을 듣다  
- 숲의 선물, 백색소음

10  
숲의 초대

숲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듣다  
- 숲을 테마로 한 클래식 음악

14  
숲의 만남

음악의 숲을 가꾸는 사람  
- 한국인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



20  
어떤 정보

세계의 숲 소리를 들어볼까요?  
- 세계 숲 소리 지도

22  
나를 부르는 숲

고요한 사색과 힐링의 시간  
- 대관령 국민의 숲

28  
트렌드의 숲

2023년엔 식물도 정기구독해요!  
- 식물 정기구독서비스

Vol. 51 January | February 2023

50  
숲속 우체통

52  
숲이 전해온 소식



32  
브런치 @숲

고급스러운 식감을 선사하는 표고버섯 브런치  
- 표고버섯 바게트 토스트 & 표고버섯 프리타타

36  
숲 크리에이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숲을 만나다  
- 이혁준 작가의 숲 연작

40  
에코 프로젝트

일회용보다 다회용! It's not a big deal!  
- 다회용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트래쉬버스터즈

44  
숲의 내일

야생식물 종보전을 위한 노아의 방주  
- 야생식물종자 시드볼트

48  
콘텐츠의 숲

게임, 숲속 힐링을 선사하다  
- 숲을 주제로 한 게임들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이번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3년 2월 1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한 해를 끝내고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서는 계절, 이때쯤 되면 누구나 마음의 고요를 찾고 싶어진다. 새삼스럽게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내일의 나를 계획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백색소음은 이럴 때 더더욱 도움이 된다. 이번 주말에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백색소음의 보고(寶庫), 숲으로 가보자. 고요한 숲의 속삭임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비로소 내면의 나와 가깝게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될 테니 말이다.

고요한 숲속,  
자연의 속삭임을 듣다

숲의 선물, 백색소음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멀리서 보면 고요할 것만 같은 숲에도 사실은 수많은 소음들이 있다. 숲을 뛰노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와 잎들이 몸을 부비는 소리, 퍼드득 날아오르는 새소리, 얼음 밑으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뽀드득 눈 밟는 소리, 소복하게 나뭇잎에 눈이 내려앉는 소리, 그러다 무거워지면 눈을 툭 떨구는 소리 등이 그것이다. 이런 소리는 다른 소음들과 다르게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연음을 백색소음이라 부른다.

백색소음의 정의는 무엇일까? 일명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불리는 백색소음은 50~70dB 크기의 넓은 주파수 범위 내의 소음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뇌파의 알파파를 동조시켜 마음이 평안해진다. 실제로 백색소음을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하면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알파파가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미다.

백색소음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소음이 다른 소음들을 모두 덮어준다는 데 있다. 특정한 청각 패턴을 갖지 않는 무던한 소음이기 때문이다. 세상사 잡념으로 마음이 시끄럽다면, 도시의 소음들로부터 잠시라도 떠나있고 싶다면, 숲으로 들어가 고요한 속삭임을 들어보도록 하자.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면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숲 ASMR을 들어도 좋겠다. 한동안 멍하게 숲의 속삭임을 듣고 있노라면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에너지가. 🌲



## 숲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듣다

숲을 테마로 한 클래식 음악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예로부터 숲은 예술가들의 창작욕을 북돋는 공간이었다.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음악도 숲에서 탄생한 사례들이 많다. 도시가 지금만큼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17~18세기 무렵, 숲은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고 새로운 영감을 찾는 예술가들에게 좋은 고독과 사색의 공간을 제공했다. 베토벤이 나무로 우거진 산책로에서 수많은 작품 구상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만큼 유명한 일화다. 숲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들과 그에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본다.



숲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들

숲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들을 몇 곡 알고 계시는지?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는 1685년 독일 튀링겐 아이제나호의 숲에서 태어났다. 숲에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바흐. 그는 '이제 쉬어라, 모든 숲들이여 BWV 756'을 작곡함으로써 나무에 대한 그의 사색을 곡에 녹여냈다. 또 한 자기가 작곡한 곡을 나무로 건축된 교회에서 연주함으로써 음악의 감동을 전했다. 바흐가 활달한 템포와 빠른 화성 변화를 선호했던 것은 이런 나무의 울림을 고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숲에서, 또 숲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어낸 것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헨델도 마찬가지다. 헨델은 그의 오페라, 세르세의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서'에서 나무 그늘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진 적이 없으면서 숲에서의 휴식을 찬미한다.

## Ludwig van Beethoven



음악 창작의 산실이 되어온 숲

숲은 찬미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음악가들의 창작 공간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숲에서 받는 평안과 위로에 누구보다 많이 기댔던 인물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던 작곡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이다. 베토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숲을 거닐며 음악을 작곡했던 음악가로 유명하다. 숲을 노래하는 베토벤의 음악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전원교향곡'. 이 곡은 시골 풍경이 주는 평온함과 전원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표현된 곡이다. 그러나 평온한 곡의 분위기와는 달리 베토벤은 이 곡을 쓸 당시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난청을 겪으면서 작곡을 위해 하일리겐슈타트 숲으로 들어갔던 베토벤. 그는 평온한 숲의 분위기를 바라보며 힘든 삶의 순간들을 극복했던 것은 아닐까? 창작의 산실로 숲을 활용했던 또 하나의 음악가는 쇼팽이다. 1838년 쇼팽은 스페인의 섬 마요르카의 '바람의 집'이라는 곳에서 24개의 프렐류드, Op. 28을 완성했다. 그가 머무르던 '바람의 집'은 많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집으로 그에게 아름다운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편지에서 그의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숲은 많은 음악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며 동시에 낭만과 공포, 신비로움을 전달해주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숲을 노래하는 음악이 발달한 것은 낭만주의 시대에 도드라지는 특징이었다. 베토벤 이후 슈만과 브람스, 스트라우스 등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숲에 대한 다양한 음악들을 작곡하며 '신비로움에 대한 동경'을 표현했다. 특히 로베르트 슈만은 '숲의 정경'이라는 제목의 피아노 연작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은 신비로운 숲속 풍경과 숨어있는 사냥꾼, 고독한 꽃, 예언의 새 등 9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B♭ 장조의 4/4박자 악곡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라는 지시어가 첨가된 '숲의 입구'는 숲으로 들어가기 전 느끼게 되는 기대감과 불안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곡의 오프닝은 서정적인 선율로 이루어져 신비롭고 환상적인 숲의 정경을 느끼게 해주고 점차 고조되는 긴장감은 신비로운 숲 뒤에 숨은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신비로움과 긴장감, 숲에 대한 이 두 가지 모순을 잘 보여주는 곡은 가장 많이 연주되는 7곡 '예언의 새'다. G단조의 느린 선율로 시작되는 이 곡은 숲에 대한 모호함을 가장 잘 표현한 곡으로 평가받는다.

슈만의 정신적 제자라 할 수 있는 브람스도 숲에 대한 음악을 많이 작곡한 음악가다. 브람스는 베토벤처럼 자연을 좋아하여 자주 빈 근처의 숲에서 산책을 했다고 한다. 그가 작곡한 '숲의 적막'은 브람스의 성격만큼이나 내향적이고 고독감이 넘치는 음악이다. 브람스와 음악적 대척점에 있는 바그너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은 숲을 강렬한 야생성과 원초적 느낌이 가득한 곳으로 그리고 있다. 바그너 악극 4부작 '니벨룽의 반지' 중 '지크프리트'의 한 대목(2막)과 말러의 칸타타 중 '탄식의 노래' 1부 '숲의 동화' 느낌은 브람스의 음악과 비교해 밝은 느낌이다.

# Robert Alexander Schumann



## 음악을 탄생하게 하는 산실이자 꾸준한 소재로 존재해온 숲, 그 느낌을 클래식 음악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자



### 숲과 음악의 떼어 수 없는 관계

음악과 숲의 상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숲의 낭만적인 면모, 공포스럽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느낌이 고대부터 작곡해온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들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클라리넷과 오보에, 바순과 같은 목관악기는 나무로 되어 있다. 그뿐인가? 현악기인 바이올린, 첼로 등도 몸판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연주자들의 손을 떠난 음악은 대부분 나무로 된 건축물 안에서 울려 퍼진다. 이처럼 숲은 음악을 탄생하게 하는 산실이자, 음악의 꾸준한 소재로 존재해왔다. 그 때문일까? 우리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안에 스며있는 나무와 숲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겨울날, 숲을 걸으며 숲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자.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술가들이 듣고 작곡하고 향유했던 숲을 고스란히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Maestro



# Gum Nanse

## 음악의 숲을 가꾸는 사람

한국인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GMC

### 음악은 숲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공연 시장. 금난새 지휘자는 그 사이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성남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청중이 없는 음악회 동영상도 제작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악 프로그램도 짊어지면서 말이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50%로 줄었던 공연이 다시 활발해졌고 작년 공연은 100회를 넘겼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진 지휘자’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씩스러운 듯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건 제가 아니라 청중에게 물어봐야겠죠? 하하. 만약 제가 다른 음악가들과 다른 게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청중들에게 음악을 어렵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려워 수가 있죠. 음악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이 들으라고 하면요. 그것을 제가 청중들에게 잘 설명했다고 할까요?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그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거구요.”

힘들게 올라야 하고, 멀리 있는 산만이 숲이 아닌 것처럼, 1,000석이 넘는 대규모 홀이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만이 음악이 아니라고 했다. 음악은 삶의 공간 안에 함께 숨 쉬는 도시숲처럼 우리의 일상 안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보지 않은 곳이 없노라고. 그의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음악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넘치게 느껴졌다.

그리고 보니 어렵듯이 그가 지휘했던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갔던 기억이 난다. 해설을 들어서인지 음악에 녹아있는 스토리가 제대로 읽히는 경험이었다.

“숲은 사람들에게 초록의 위안도 주고 좋은 공기도 주잖아요. 숲이 있어서 사람들의 공간이 풍요로워지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일상에서 함께 한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겠죠. 제가 하는 설명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이솝이야기 중 ‘학과 여우’를 곁들여 곧잘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학에게 납작한 접시로 음식을 대접하면 못 먹잖아요. 여우도 호리병에 음식을 주면 못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설도 하고 안내를 해야 음악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35년 전 처음 시도했던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이제 지휘자 금난새의 브랜드가 되었다. 뿐만 아니다. 좋은 것은 확장성이 생기는 법. 도처에서 수많은 ‘해설이 있는 음악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숲이 번지는 것에 비유했다. 그렇게 음악의 공원이 되고 음악의 숲이 되어가는 거라고.

###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시도

그를 특징하는 단어는 새로운 시도다. 포스코 로비에서 연주를 시작했던 것도 그만큼 놀라운 시도였다.

“꼭 대규모 홀에서만 연주하는 것만이 음악은 아니죠. 어떤 형태든 어떤 공간이든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철학이에요. 2천 년도에 최초로 심포니 콘서트를 연주했던 포스코 로비가 생각나네요. 15미터의 높은 유리로 된 로비가 제 눈에는 유리로 된 성당으로 보였어요. 거기에서 베토벤 교향곡 아홉 곡을 다 연주했고 반응이 좋으니까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브람스 이런 식으로 다 연주했어요.”

어디서든 연주한다는 마음 때문일까? 그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 대도시는 문화의 향유가 당연하지만 저 멀리 섬이나 외진 곳에서는 그만큼 음악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년에 100회 이상 연주를 하는데요.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가 50명 갈 수 있는 데는 50명이 가지만 공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15명으로 줄여서라도 가요. 15년 전쯤인가에는 울릉도에도 다녀왔어요. 울릉도 소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구요. 왜 나는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것을 듣지 못하고 자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갈 때 배를 타고 고생하면서 갔는데 가보니 홀이 70%밖에 지어지지 않았더라구요. 다 짓기도 전에 우리가 가서 연주를 했는데 계단에도 앉고 복도에도 앉아서 음악회를 했어요. 울릉도를 지키던 군인 아저씨들도 오구요. 영화 같은 풍경의 음악회가 되었죠. 울릉도에 소규모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가서 연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 부산에 개관한 금난새 뮤직센터

그런가 하면 2021년에는 부산에 금난새 뮤직센터를 개관하여 챔버 뮤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1963년 세워졌던 고려제강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3만평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으로 되돌려준 것. 그중 금난새 뮤직센터는 20m×100m의 창고 부지의 1층과 지하를 새로 모던하게 지은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실내악 콘서트홀에 안성맞춤이다.

“서양에서는 실내악으로 먼저 시작해서 커진 후 1,000석, 2,000석의 오케스트라 음악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곳에서 듣는 음악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우리 음악계를 위해서라도 실내악 음악을 좀 더 보급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실내악 음악을 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부산 금난새 뮤직센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고마운 것은 그 장소가 소리도 너무 좋고 음향이 좋다는 거예요. 개관한지 이제 17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주를 벌써 100회 가까이 했어요.” 2022년에는 서머 페스티벌로 야외 음악회도 시도했다. 일주일 동안 총 18회, 그러니까 하루 2~3번씩 욕심을 부려서 음악회를 열었던 것. 반응도 뜨거웠다. 덕분에 2023년에도 뮤직센터의 대나무 숲에서 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숲에서 연주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묻자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글쎄요? 모기 정도? 하하하. 평소에는 너무 바쁘니까 산이나 숲에는 잘 가지 못하거든요. 독일에서 기숙사 생활할 때는 어디나 숲이 있었어요. 음악회를 보고 돌아오는 길은 숲 사이를 걸어오는 거였죠. 좋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며 만났던 그 숲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스스로와 대화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죠. 숲은 이렇게 산에나 올라가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데 있는 거잖아요? 음악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1  
부산 금난새 뮤직센터의 숲 전경. 편안한 자연을 배경으로 음악이 연주되는 아름다운 곳이다.

2  
우리 음악계를 위해 실내악을 더 보급해가고 싶다고 말하는 금난새 지휘자





### 우리의 삶 속에 숲처럼 음악이 번져가길

마지막으로 숲을 걸으며 들으면 좋은 음악 소개를 부탁하자 그는 베토벤 '전원교향곡'을 먼저 이야기했다.

“학생 때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 까 오케스트라 바로 뒷좌석에 앉아 음악을 듣는데 연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전원교향곡은 베토벤이 200년 전에 자연의 모습을 음악으로 그린 거잖아요? 별로 좋아하는 곡도 아니었는데 그날 연주는 너무 훌륭해서 눈물이 나더라구요. 그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한 가지 더 추천하라면 원시림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라벨의 ‘다프네와 클로에’를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지휘자 금난새는 또 다른 시도들로 바쁠 것이다. 6월에 있을 LA 종전 60주년 기념 음악회도 준비해야 하고, GMC의 두 번째 페스티벌도 준비해야 하고, 서울예고에서 새롭게 지은 1,000석 홀의 총 음악감독직을 맡아 기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분서주 바쁘겠지만 그가 향해가는 길은 오직 하나. 음악의 숲을 가꾸는 것일 게다. 2023년 우리 주변의 숲이, 음악이 그의 손을 거쳐 가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

### 금난새 뮤직센터

부산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051-756-0037  
@gumnanse.music.center

### 숲을 걸으며 이런 음악 어때요?

#### 베토벤 〈전원교향곡〉 중 2악장

총 5개 악장 교향곡으로 자연의 아름다움(1악장, 자연에 도착했을 때 상큼한 느낌. 2악장, 숲속의 이야기. 3악장, 축제가 벌어지는 마을의 모습. 4악장, 폭풍이 찾아온 마을. 5악장, 폭풍이 잦아들고 다시 평화를 찾은 마을)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베토벤 전원교향곡을  
QR영상을 통해 들어보세요!



#### 라벨의 〈다프네와 클로에〉의 suite2 6~7분 정도

〈다프네와 클로에〉 신화를 주제로 한 곡으로 원시림, 즉 인공의 느낌을 배제한 자연 그대로의 생생한 숲을 느낄 수 있다.

라벨의 다프네와 클로에를  
QR영상을 통해 들어보세요!



# SOUNDS of The FOREST

## 세계의 숲 소리를 들어볼까요?

30여 개국 숲 애호가들이 만든 세계 숲 소리 지도

글 매거진 숲 편집실



개똥지빠귀 소리

말레이시아 

들어보자. 어느 늦은 아침 말레이시아 타만네가라국립공원 숲에서 개똥지빠귀가 지저귀는 소리를. 개똥지빠귀는 지빠귀새 중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로 참새 목, 개똥지빠귀과다. 우리나라에는 10월경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로 낮은 산지나 농경지, 주변 덤불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개똥지빠귀를 관찰하면 '찌르르'라고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가 무척 밝고 정겹다.



여우원숭이 소리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아프리카의 섬이다. 동쪽으로는 가파른 절벽이 있고 중앙에는 고원이 있으며 열대우림과 마주한다. 이 섬에는 여우원숭이를 비롯, 전 세계 생명종 중 5%가 서식하고 있다. 세계 숲 소리 지도를 켜고 마다가스카르섬 안다시베 숲에 사는 몸집 큰 여우원숭이 인드리가 동료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자.

## Soundmap

전 세계 숲의 생생한 소리를 골라서 들어볼까? 웹사이트, 세계 숲 소리 지도에 들어가면 가능하다. '세계 숲 소리 지도'는 해마다 세계 숲 축제를 여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 팀버 페스티벌과 비영리단체, 와일드 럼퍼스가 만든 온라인 웹사이트다. 지도의 해당 장소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숲 소리를 1분 동안 들을 수 있다. 방 안에 앉아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숲을 소리로 탐험해보도록 하자.

## Soundmap



나이팅게일 소리

슬로바키아 

나이팅게일은 아름다운 울음소리로 유명한 새다. 언뜻 듣기로는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찌르릉 하거나 짹짹 하기도 한다. 그렇게 내는 소리가 무려 1,000여 가지에 이른다고. 게다가 나이팅게일은 낮뿐 아니라 다른 동물이 다 잠든 밤에도 쉬지 않고 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밤꾹꾹리'라고도 부른다. 수없이 많은 울음소리 중 슬로바키아에 사는 나이팅게일의 소리는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콘셉시온 대학 인근 폭포 소리

칠레 

콘셉시온은 칠레의 유명한 대학 도시이며 고도화된 산업 도시이기도 하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남쪽으로 약 500km 정도, 비오비오강 어귀로부터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2010년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회복한 도시, 콘셉시온 대학 인근의 우렁찬 폭포 소리를 들어보자.

[www.timberfestival.org.uk/soundsoftheforest](http://www.timberfestival.org.uk/soundsoftheforest)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계 숲 소리를 탐험해보세요.

## 고요한 사색과 힐링의 시간

대관령 국민의 숲

새해 새 기획, 아름다운 숲길 탐방.  
첫 방문지로 산림청 지정 국가숲길  
1호인 평창 대관령 숲길, 그중에도  
유난히 한적한 코스인 ‘국민의 숲’을  
찾았다. 한겨울 싸한 공기 속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면  
생각나는 곳. 눈이 내리면 더욱 그리워  
지는 곳. 전나무, 낙엽송, 독일가문비  
나무, 자작나무 등 하늘을 찌를 듯한  
키 큰 나무들이 마치 동맹을 맺은  
용사들처럼 굳게 숲을 지키고 있는 곳.  
대관령 국민의 숲은 새해 소망을 품고  
동해 바다나 일출을 보러 가는 분들에게  
꼭 한번 찾아보기를 권해 드리는  
곳이기도 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신중식

이번 취재를 위해 대관령 국민의 숲을 두 번 찾았다. 두 번째 방문 때는 폭설이 내려 숲 전체가 환상의 설국이었다. 사람 살기에 가장 좋다고 하는 고도 700m 전후의 대관령. 멀리 남서쪽으로 발왕산(1,458m) 정상에 눈에 들어오는데 그리 높아 보이지를 않으니 그만큼 대관령의 고도가 높다는 뜻이겠다. 역시 공기가 다르다. 하지만 국민의 숲 입구는 참 평범하다. 횡계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 강릉 방향 구 대관령휴게소 1.5km 전 한적한 도로변. ‘국민의 숲 산림 트레킹 코스’라는 큰 입간판이 있어 걸음을 멈추면 정문도 따로 없이 그냥 출입구가 보인다. 너무 평범해서 이런 곳에 뭐가 있겠나 싶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들어갈수록 눈이 휘둥그레지며 오오 하는 감탄사가 나온다. 높이 30m는 충분한 침엽수들이 끝없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키 큰 거인들의 나라! 벽을 밀면 스르륵 비밀의 방이 열리는 판타지 영화와도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 키 큰 거인들이 지키는 환상의 겨울왕국 숲속으로

대관령은 사실 이 국민의 숲을 중심으로 아름다리 전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오대산 월정사도 바로 인접해 있다. 그만큼 대관령 일대는 평균 기온이 낮아 전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에도 국민의 숲에는 전나무 외에도 소나무, 낙엽송, 독일가문비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주목 같은 주로 키가 큰 침엽수와 활엽수들이 사이 좋게 숲을 이루어 다양한 수종을 한 곳에서 만나는 재미가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숲길 탐방에 나선다. 원래 눈이 많은 대관령에 대설이 내렸으니 숲은 그대로 겨울왕국이다. 특히 국민의 숲은 침엽수가 주종이라, 흰 눈에 덮여 팔을 짹짹 뻗은 그 모습이 꼭 북유럽의 어디에 온 것 같다. 눈 내린 겨울 숲은 고요하다. 하얀 입김을 불어가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발걸음 따라 뽀뽀뽀... 개구리가 따라오는 것인가? 아니, 숲속 은둔의 수행자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인가? 너무나 나직하고 은근한 그 소리에 문득 마음이 편안해진다. 숲에는 샛길도 많지만 군데군데 안내도가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안내도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거리가 3.75km, 참 아담한 숲이다. 경사로도 거의 없어 힘들지 않게 대략 1시간 30분이면 둘러볼 수 있다. 먼저 뽀뽀한 낙엽송 군락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소나무과의 침엽수지만 가을이면 낙엽이 지기에 흔히 낙엽송이라 부르는 나무. 키가 너무 커서 자꾸만 위를 쳐다보게 되는데, 하늘로 앙상히 뻗은 빈 가지들이 웬지 아련하다.

### 천천히 천천히, 고요한 생명의 숲을 거닐다

계속 가다 보면 드디어 국민의 숲의 주인공 격인 전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전나무는 낙엽송과 달리 한겨울에도 푸르디푸르다. 나무 자체가 우람할 뿐 아니라 끝까지 곧게 자라 강인하고 패기 넘치는

용사를 연상케 한다. 강풍과 폭설에도 결코 굴함 없이 만세를 부르듯 푸른 가지를 펼치고 있는 전나무를 보면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진다. 더구나 이 멋진 나무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라고 하니 더욱 기분 좋은 일 아닌가. 전나무 숲과 더불어 독일가문비나무 숲도 조성돼 있다. 이 두 나무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하는데, 독일가문비나무는 크게 자라면 가지가 약간 경사지게 늘어진다고 한다. 그런 자세한 건 몰라도 아무튼 이런 침엽수에서면 역력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니 국민의 숲길을 갈 때는 걸음도 천천히, 숨도 천천히 깊게 쉬어 보자. 그 상쾌함이, 몸속의 묵은 산소를 싹 갈아 끼운 기분이다. 숲을 절반쯤 돌면 이제 자작나무 조림지를 만난다. 숲속의 신사, 혹은 숲속의 귀족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기품 있는 나무. 유독 하얀 수피가 빛을 반사해 주변 공기가 한결 더 밝고 맑고 개운해지는 느낌을 주는 나무. 그래서 자작나무 숲에 들어서면 어디선가 숲의 정령이 공기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신비로움이 사실 자작나무 숲뿐이라. 이 겨울, 차가운 눈을 이고 있는 낙엽 밑에, 흙 속에, 무수한 생명의 씨알들이 숨죽이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숲은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가득하다.



- 1  
키 높은 침엽수들이 끝없이 서있는 대관령 국민의 숲길. 눈이 내려 더욱 근사하다.
- 2  
국민의 숲은 경사로도 거의 없어 대략 1시간 30분이면 둘러볼 수 있다.
- 3  
전나무 외에도 소나무, 낙엽송, 독일가문비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주목 같은 키 큰 나무들이 사이좋게 숲을 이루고 있다.



대관령 국민의 숲길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4



5

## 호젓하게 숲멍을 즐기기에 좋은 대관령 국민의 숲

이제 숲길을 한 바퀴 다 돌았다. 시간이 있다면 샛길로 해서 더 충분히 숲과의 대화를 즐길 수도 있겠다. 사계절 언제 와도 좋지만 겨울이면 더욱 더 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 군데군데 쉬어갈 만한 벤치도 마련돼 있으니 보온병에 뜨거운 물 담아가 호젓하게 차 한 잔 한다면 그런 호사가 또 있을까? 눈까지 내려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고요한 사색과 힐링의 시간, 불명 아닌 숲멍을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바로 여기 대관령 국민의 숲이다. 세계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새해가 왔건만 세상은 갈수록 예측불허다. 올해는 또 어떤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그렇게 원가 마음을 다질 시간이 필요할 때 이곳 대관령 국민의 숲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사람들 발길이 적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차를 몰고 오면 더 편리하겠지만, 버스를 이용해도 좋다. 횡계시외버스터미널이 불과 4km 거리. 터미널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들이 많아 버스 시간만 잘 맞추면 운전 피로감 없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출구를 나오며 다시 한 번 숲을 돌아본다. 침묵에 잠긴 숲. 영하의 공기가 묵언으로 숲을 감싸고 있다. 숲길을 걷는 내내 나지막한 발걸음 소리로 동행했던 은둔의 수행자는 역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텅 빈 공기 속 가득히 그의 아련한 미소가 느껴지는 건 왜일까. 거기엔 있는 것이다. 봄이 오면 또 기지개를 켜며 웅성웅성 일어날 무수한 생명들이. 🌲

4  
강풍과 폭설에도 굴함 없이 만세를 부르듯 서있는 나무들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5  
침묵에 잠긴 숲, 영하의 공기가 묵언으로 숲을 감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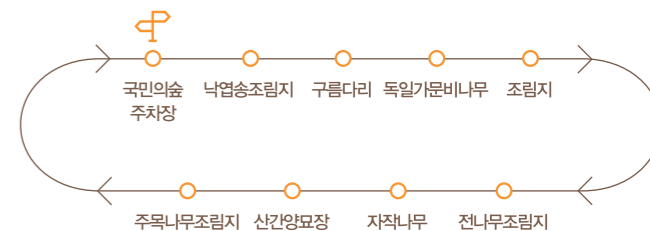
원래 눈이 많은  
대관령에 대설이  
내렸으니 숲은 그대로  
겨울왕국이다  
눈 내린 겨울 숲은  
고요하다

## 국민의 숲 탐방 정보



코스 길이 | 3.75km

코스 구간 |



대관령 숲길안내센터 |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760  
033-336-4037, 월요일 휴무

## 2023년엔 식물도 정기구독해요!

### [식물 정기구독서비스]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식물을 큐레이션하여 2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송,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실내에서도 푸른 숲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나 식물 관리를 어려워하는 초보자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요즘에는 플랜테리어가 필요한 오피스나 카페, 사업장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UBSCRIBE

신문과 잡지, 우유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에 익숙하다면 2023년에는 식물로 그 영역을 넓혀보는 것이 어떨까? 식물 정기구독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새로운 식물들을 배송받아볼 수 있다. 초보자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용품과 정보도 함께 배송되고 정기적으로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므로 식집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시도해볼 수 있겠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플랜트스토리, 꾸까, 트리팜

구독경제 (Subscription Economy)란 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경제모형을 말한다. 이 개념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다가 어느새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신문, 잡지, 우유 등으로 시작되었던 구독경제는 이제 OTT, 도서, 음원 등의 콘텐츠 시장을 넘어 식단, 와이셔츠, 의류, 액세서리, 차량, 명품, 생필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구독경제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 정기구독서비스도 초점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미 일정한 취향을 갖게 된 식집사라면 직접 나가서 식물을 골라 들이며 키우는데 정성을 쏟겠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초보라면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식물에 대한 나만의 취향을 갖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그 식물이 좋아하는 빛과 흙과 바람을 신경 쓰고 존중하고 교감하는 일이니 말이다. 때문에 취향을 갖고 싶다면 많이 경험해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식물 정기구독서비스가 초보 식집사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식물 정기구독서비스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고객들의 이런 욕구를 제대로 파악한 기업들이다. 그 가운데는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배송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 특별한 큐레이션을 하는 곳도 있고 방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계절에 따라 식물을 교환해주는 기업도 있다. 타깃도 다양화하여 개인 고객들은 물론 오피스나 매장에 정기구독 및 렌탈 서비스를 하는 곳도 생겨났다.

식물의 구매부터 배송,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식물 정기구독서비스 기업들을 만나보기로 하자. 식물 커머스의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릴 것이다.

# Plant Subscription

# PLANT STORY



플랜트스토리의 정기구독서비스는 박준상 대표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반려식물 농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분명히 키우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인데 일반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식물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늘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유통 과정을 단순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식물들을 쉽고 다양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끝에 구상해낸 것이 플랜트스토리의 정기구독서비스다. 플랜트스토리는 일반인을 타겟으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신청을 받아 방문 관리까지 겸한 정기구독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하여 2~4만원에 정기구독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좋은 식물들을 더 많이 경험해보았으면 하는 의미다. “처음에는 아주 쉬운 식물로 시작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육이나 선인장 같은 물을 좀 적게 주어도 관리가 되는 식물부터요. 점차로 익숙해지시면 다양한 식물을 접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릴 거예요.” 플랜트스토리 박준상 대표의 말이다.

instagram.com/plantstory\_official

2014년에 시작하여 벌써 7~8년을 넘겨가며 정착해가고 있는 꾸까의 꽃 정기구독서비스를 아시는지? 꽃을 좋아해도 매번 오프라인 꽃집을 방문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 가격도 비싸 꽃을 즐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꾸까는 택배를 통해 정기적으로 꽃을 보내니까 아무래도 꽃을 즐기기가 더 쉽고, 대량으로 꽃을 서비스하니까 가격도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고 사이즈별로 금액이 달라진다. 대략 2~4만원이면 꽃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택배로 꽃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냐고? 꾸까는 꽃에 물주머니를 달아서 가는 동안 건조해지지 않게 하고, 온습도를 맞출 수 있는 특별 포장 박스로 전국 어디로나 꽃을 싱싱하게 배달하고 있다. 또한 제철 꽃만을 이용하여 24시간 안에 배송되니까 계절감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구독서비스를 경험해보도록 하자. 놀랍도록 화사해지는 공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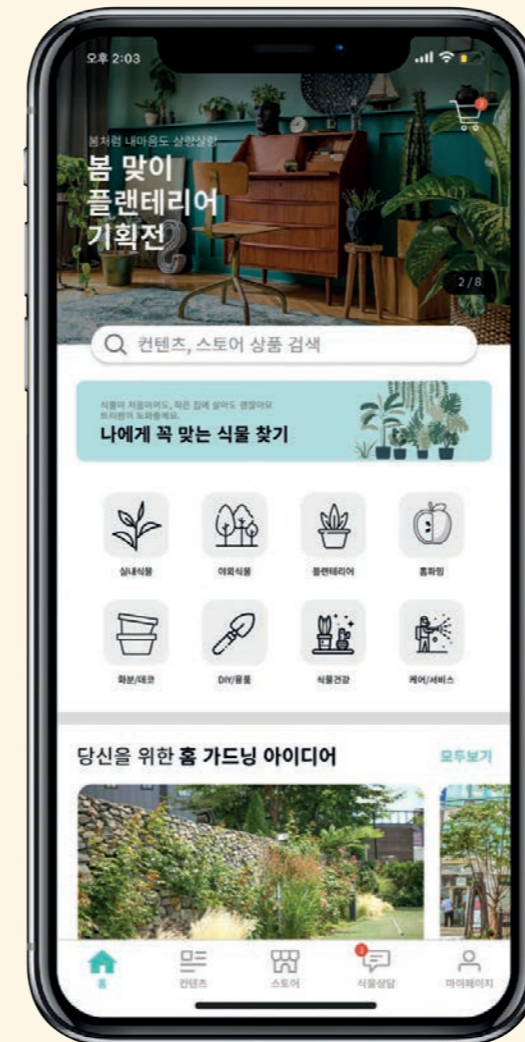
www.linktr.ee/kukka  
instagram.com/official\_kukka

# KUKKA



# 식물회관

www.sikmul.hall  
instagram.com/sikmul.hall



## 식물회관 고창완 대표 미니 인터뷰

Q 식물 정기구독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A 코로나 이후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플랜테리어, 반려식물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회사 오피스나 매장, 카페 등 조금만 관심 갖고 둘러보면 식물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선물로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식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아서 대부분 죽어있는 화분으로 방치된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매주 방문관리가 포함된 정기구독서비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이 사업 모델이 되었습니다.



Q 우리 회사만의 식물 정기구독서비스에 대한 자량을 해주신다면?

A 식물회관만의 차별점이라고 하면요. 매주 방문해서 관리해드리는데도 있지만 시즌별로 분위기에 맞는 식물로 무상 교체해드리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기구독서비스의 주요 타겟은 개인보다는 오피스나 카페, 병원 같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원해서 저희의 정기구독서비스를 많이들 좋아하시죠.

Q 어떤 사람들에게 권하시는지?

A 화분이 있는 곳, 식물로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은 분이라면 어디든 가능해요. 식물회관의 정기구독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무료 방문을 통해 식물을 추천해드릴 뿐 아니라 관리까지 해드리고 시즌별로 교체까지 해드리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기구독서비스는 최소 수량이 있다 보니 아직까지 일반 가정보다는, 매장, 카페, 병원 등에 주로 권해드리고 있어요.

Q 2023년 식물회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A 네. 트리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식물회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기구독서비스 외에도 일반 가정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수거/배송서비스'와 '정기구독서비스', '식물콘텐츠' 등 다양한 식물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커머스 앱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누구나 식물의 구매부터 관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물대명사 앱으로 성장시키고 싶어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고급스러운 식감을 선사하는 표고버섯 브런치

표고버섯 바게트 토스트  
&  
표고버섯 프리타타

버섯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손꼽히는 식재료다. 그래서인지 샌드위치나 스프, 오믈렛 등에도 잘 활용된다. 쫄깃하고 고급스러운 식감을 느끼고 싶다면 표고버섯을 활용한 브런치에 도전해보자. 표고버섯 바게트 토스트와 스페인식 오믈렛, 표고버섯 프리타타가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 Shiitake Mushroom Baguette Toast

표고버섯 바게트 토스트

## 재료 Ingredients

바게트 4조각, 표고버섯 50g,  
베이컨 1장, 마요네즈 1T,  
양파 1/8개, 슈레드 치즈 2T,  
어린잎 채소 약간(장식용),  
소금, 후추 약간



표고버섯 바게트 토스트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 만드는 법 Recipe

- ① 손질해둔 표고버섯은 밀등을 자르고 얇게 썬다. 얇게 썰면 표고버섯의 향이 더 많이 올라온다.
- ② 양파와 베이컨도 얇게 채 썬다.
- ③ 야채와 베이컨을 모두 불에 담아 썬고 슈레드 치즈를 넣어 잘 섞는다.  
내용물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씩 넣어 간 한다.
- ④ 바게트 빵에 마요네즈를 얇게 펴 바른 후 내용물을 푸짐하게 올린다.
- ⑤ 치즈를 좀 더 올린 후 220℃ 오븐 토스터기나 에어프라이어에 넣어 7분 동안 구워낸다.
- ⑥ 구워 낸 표고버섯 토스트에 어린잎 채소를 올려 장식한 후 먹는다.

/ 취향에 따라 간장을 약간 뿌려 먹어도 좋다.



# Shiitake Mushroom Prittata

표고버섯 프리타타

## 재료 Ingredients

계란 3개, 표고버섯과  
다른 종류의 버섯들 200g,  
양파 1/2개, 브로콜리 약간,  
빨간색 파프리카 약간,  
슈레드 치즈 1T, 올리브유 1T,  
소금 후추 약간, 마늘 약간



표고버섯 프리타타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 만드는 법 Recipe

- ① 표고버섯과 다른 버섯들을 손질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둔다.
- ② 파프리카는 잘게 썰고 브로콜리는 모양이 보이게 떨어뜨려 썬다.
- ③ 양파는 채 썰어 전자렌지에 뚜껑 없이 3분간 돌려 수분을 날린다.
- ④ 계란은 약한 간을 한 후 알끈을 빼고 거품이 나지 않게 섞는다.
- ⑤ 후라이팬에 으깬 마늘을 넣고 오일에 마늘향이 스며들도록 약불에 잠시 둔다.
- ⑥ 마늘향이 올라오면 팬에 양파와 버섯들을 넣고 잠시 둔다.
- ⑦ 버섯이 숨죽으면 살짝 섞은 후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치즈를 넣고 약한 불에  
잠시 둔 후 그 위로 계란을 붓는다.
- ⑧ 불을 더 약하게 조절한 후 뚜껑을 닫아 익히면 완성.

/ 쉽게 탈 수 있으므로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숲을 만나다

이혁준 사진작가의 ‘숲 연작’



얼핏 보면 누구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숲이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르다. 온대 지방 각종 활엽수와 넝쿨 사이에서 갑자기 열대식물이 솟아나고, 고목과 같은 거대한 크기의 화초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 말이다. 이혁준 사진작가는 <숲 연작>을 통해 국내외에서 촬영한 숲의 이미지를 조각내 다시 끼워 맞추면서 이처럼 새로운 숲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숲이라는 외부의 자극을 인식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며 내면 안에서 새롭게 상상의 숲을 만들어가는 작가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나보도록 하자.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이혁준 작가



Forest\_Eden 4-3, 135x230cm, Variable installation, Varnishing on Collage, 2012

숲을 내면화해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이혁준 작가의 <숲 연작>은 사진 작품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사진과는 무엇인가가 다르다. 촬영한 이미지를 찢어 붙이고 재조합하여 내면화한 나만의 숲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작가가 작업해나가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 먼저 다양한 숲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촬영한 이미지를 놓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조합한다. 이미지가 완성되면 이것을 2~3벌 정도 프린트한다. 2~3벌의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찢어서 겹친 후 조화롭게 다시 이어 붙인다. 이렇게 완성된 사진을 베니싱으로 칠해 완성한다. 작가의 이런 시도는 인간의 인식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다. 처음 이혁준 작가가 숲을 보고 그것을 표현해 보고자 했던 시절로 돌아가보자. 2006년경 동남아의 한 리조트에서 머물다가 우연히 창밖을

바라본 작가. 그곳의 창은 액자처럼 보였고 액자 안에는 굉장히 뽀뽀한 숲이 보였다. 그 액자 속에 비쳤던 숲이 작가 자신이 숲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웠다고 작가는 회상한다. “생전 처음 외본 곳이라 생소한 장면이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숲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었어요. 왜 처음 본 숲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을까, 되짚어 봤더니 제가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미지들이 직접 숲에 가서 경험했던 것들보다는 잡지나 신문, 미디어 등에서 봤던 숲 이미지에 더 많이 기대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숲이라는 내면적 이미지가 이런 외부적 경험들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봤던 이미지들보다 여기에 좀 더 기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촬영했던 객관적인 숲들의 이미지를 찢어 붙이고 재구성하면서 자기만의 내면화된 숲을 만들어냈고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또 숲이라는 단어, 혹은 언어와 연결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작업은 <기억의 집합>에서 <숲\_에덴>으로, <인간적 공간>으로 <공간에 대한 욕망, 점유>로 유연하게 진화해갔다. 초기 <기억의 집합> 작품들이 작가의 단편적 경험에 대한 조합들이었다면 이어지는 <숲\_에덴>에는 자연이나 인공적 숲에 어우러져 존재하는 인간의 흔적들을 함께 담았다. 숲에 존재하는 인간의 자취는 인간적 삶을 위한 영역 확보 행위의 흔적이면서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작품에서도 인공물의 이미지는 우연히라도 숲과 함께 찍힌 사진을 그대로 배치하고 있다. 원시적 형상물, 놀이기구, 경비초소, 길, 오두막, 버려진 트럭 등 숲을

1  
촬영했던 객관적인 숲의 이미지를 찢어 붙이고 재구성하여 자기만의 내면화된 숲을 만들어낸 <숲 연작>

촬영한 이미지를 재조합하여  
만들어낸 이혁준 작가의 <숲 연작>,  
인간의 인식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다

2

대부도의 인간적, 지리적  
역사에 근거한 작업  
<공간에 대한 욕망\_점유>

송배하고 정복하고 보호하고 즐기 위해 인간  
이 만든 흔적들은 인간의 삶과 숲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다.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숲

인간에게 숲이란 무엇인가? 숲은 두려움과 신  
비의 대상이면서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의 분출  
구이기도 하며 보호의 객체이기도 하다. 인간  
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  
스로 숲을 걸어 나와 도시를 건설했음에도 불구  
하고 끊임없이 숲을 그리워하고 동경한다. 인간  
이 사는 도시 안에 새롭게 숲을 만들고 있는 것  
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끊임없이 생겨나  
는 정원과 도시숲, 화단과 공원이 그 증거이다.

개발과 훼손, 보호와 조화라는 이율배반적 관계  
는 <숲\_에덴> 작품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이  
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숲에 대한 단상은 작가가  
뉴욕 센트럴 파크에 가서 단기간에 작업해온 <인  
간적 공간>에서 볼 수 있다. 작가의 사고 과정은  
<인간의 재료>에까지 연결된다. 숲과 인간 사이  
의 기초적인 접합 지점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숲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세상에 내  
놓는 과정을 거치며 작가는 수도 없이 숲을 돌  
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자연적인 숲만을 대상  
으로 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원시 숲을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이나 도시숲, 자연  
휴양림에 더 많이 다니며 작업을 했다고. 이후  
이혁준 작가는 소유와 가치, 놀이라는 다른 컨  
셉의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대상성보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생각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  
하거든요. <숲 연작>은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에  
서부터 출발했던 거구요. 이후 작업한 <소유>는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규정하는 본질이 무엇인  
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현  
재는 <놀이>라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에서 가치로서 크게 차  
이 나는 것이 <놀이>가 아닐까 생각해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요즘에도 척도가 완전히 변한 것  
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등한시했던 놀이를 긍정  
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졌잖아요? 좀 더  
발전되면 숲은 놀이라는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  
기 때문에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  
습니다.”

작가가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오롯이 만들어낸  
<숲 연작>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원시의 숲을 베고 깎아내고 물을 막고 바다를 메  
우며 끊임없이 변형을 가해온 인간의 숲. 그 숲  
은 과연 자연의 숲이라 말할 수 있을까? 원시적  
인 생명을 지워낸 가장 인공적인 숲이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은 숲과, 혹은 자연과 어떻게 관  
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터뷰가 끝  
난 시점, 도리어 끝없는 의문과 생각을 던져주  
는 작가의 <숲 연작>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



3

Between 11-15, 132x26 + 18x26cm each, 2013

2

Two kinds of hope, 1+44 Photographs,  
Variable installation, 2012

3

숲에 대한 작가의 사유는  
<인간의 재료>에 까지  
도달했다.

## 일회용보다 다회용! It's not a big deal!

다회용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트래쉬버스터즈

2022년, 파키스탄은 기록적 폭우로 국토 3분의 1이 침수되었고, 유럽은 폭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멕시코의 가뭄으로 '스리라차 소스'는 생산이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의 2022년 봄은 역대 가장 더웠던 봄으로 기록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대두된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일회용품 10억 2,400만개가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으로 증가되긴 했지만,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6년에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자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 텀블러 사용이나 머그컵 사용 등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일상에서 매번 실천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법. 여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쾌하고 힙한 브랜딩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있다. 이름에서부터 포부가 느껴지는 브랜드, 트래쉬버스터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트래쉬버스터즈



#일회용품out!  
#다회용기ok!

### 지구를 지키는 일은 멋지고 유쾌한 일이니까

트래쉬버스터즈의 서비스는 아주 심플하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다 사용된 다회용기는 수거하여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이다. 축제 서비스 모델로 시작해서 현재는 사내카페, 탕비실, 일반카페, 영화관, 경기장 등으로 확장했다. 사용자는 일회용품을 쓰는 것처럼 카페나 탕비실, 축제 현장에서 컵이나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 일회용품처럼 편하게 쓰지만, 환경적이고 유쾌한 경험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트래쉬버스터즈 객재원 대표는 말한다.

트래쉬버스터즈는 2019년 시작됐다. 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일을 하던 객재원 대표가 축제 현장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직접 목격하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 계기.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했고 시작부터 주변의 관심이 뜨거웠다. 서비스 자체도 신선했지만, 시장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었고, 신박하고 유쾌한 브랜딩이 한몫을 했다. 고스트버스터즈를 연상하게 하는 심볼과 함께 친환경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녹색이 아닌, 눈에 잘 띄고 한눈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오렌지 컬러를 메인 컬러로 잡았다. “꼭 착하고 안전한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희는 멋지고 유쾌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지구를 지키는 일이 패션 브랜드처럼 멋지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객재원 대표의 말이다.

1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big deal이 아니다.

2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품처럼 편하게 쓰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



#버스팅스코어

#B2B비즈니스

## 기회가 위기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서비스를 오픈하자마자 줄줄이 예약이 잡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다. 예약은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한다. 한 번은 5톤 트럭 가득 다회용컵을 채우고 부산에 내려가다가 울산을 지나고 있을 때 취소 연락을 받았다. 좌절감이 몰려오는 순간이었지만, 마음을 붙잡고 새롭게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축제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큰 기회였는데 코로나는 너무 심각하고 예상보다 길었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주저않지 않고 민첩하게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사내카페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곳을 찾은 것이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었고 KT를 시작으로 다양한 고객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네이버, 카카오, 국민카드 등 다양한 곳에서 트래쉬버스터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객재원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한다. “돌아보니, 덕분에 좀 더 빠르게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환경을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요.”

트래쉬버스터즈는 다회용기 누적 사용량을 ‘버스팅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에 월마다 정기 게재를 하고 있다. 2022년 초반 180만 정도였던 스코어가 11월 드디어 1천만을 돌파했다.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페스티벌과 축제가 다시 열리고, 사내카페와 일반카페 등 서비스가 점점 확장하면서 회사가 성장한 덕분이다. 트래쉬버스터즈는 B2B 비즈니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유쾌한 브랜딩 덕분인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나 브랜드 협업이 많다. 르꼬끄와는 두번의 콜라보를 진행했고, 출판사인 창비와도 협업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각종 방송 출연과 미디어 인터뷰 등에서 자주 주목하는 화제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자체 캠페인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음료를 보내는 ‘WMUP(웜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처럼 기존의 친환경 업계나 B2B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계속해서 성장해나가고 있다.

4  
서비스도 신선했지만 신박하고 유쾌한 브랜딩이 한몫을 했다.

5  
다회용기 누적 사용량을 ‘버스팅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에 정기 게재하고 있다.

##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다시 쓰기, It's not a big deal!

“일회용품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겼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 전까지 사실 물건은 다시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객재원 대표는 물건을 새로 만들거나 사는 것보다 다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트래쉬버스터즈는 그래서 새로운 굿즈를 만들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지양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회용품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일을 하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당연하게 당근마켓을 찾는다. 비단 트래쉬버스터즈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의미하는 ‘디컨슈머’라는 제목을 단 책이 나왔다. 환경을 위한 실천은 많은 이들의 일상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물건이 넘쳐나고, 필요하지 않아도 소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트래쉬버스터즈는 새로 사거나 만들지 말고, 재사용하자고 말한다. 환경을 위해서 일까? 아니면 공유 경제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때문일까? 객재원 대표는 웃으며, 그냥 다시 쓰는 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라고 말한다. 쇼핑물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옷들을 보다가 옷장에 가득찬 옷이 떠올랐다. 새로 나온 신상 텀블러를 고민하다가도 부엌 찬장에 있는 여러개의 텀블러들을 떠올린다. 사실 우리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되어있는지도 모른다.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지, 무엇이든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써봐야겠다. 분명 그게 지구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다 사용된 다회용기는 수거,  
세척 후 배송하여 재사용하는  
유쾌한 경험을 제공한다



# 야생식물 종보전을 위한 노아의 방주

산림청 야생식물종자 시드볼트

전 세계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서 세계 최대 식물보전 네트워크인 ‘국제 식물원 보존연맹(Botanic Garden Conservation International, BGCI)’에서는 전 세계 나무 종류의 30%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산에 가면 구상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나무가 고사해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야생식물 종자를 수집하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조성된 시드볼트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야생식물종의 노아의 방주인 셈이죠. 이번 호 매거진 숲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맞서 야생식물을 지키고 있는 산림청의 시드볼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 기후변화에 위협받는 나무들

국제 식물원 보존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나무는 총 5만 8,497종류. 그중 30%에 이르는 1만 7,510종류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중 440종류는 야생에 남아 있는 개체가 50개 미만으로 거의 멸종 직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멸종되었다고 보고된 나무도 142종류. 이 또한 전체 식물 중 나무만 조사한 것이라고 하니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634종류의 나무가 있고 이 가운데 37종류가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죠? 나무가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좋지 않은 생육 환경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아한대의 생태계에 자라는 나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아한대 나무종류의 20%는 기온 상승에 따라 온대 식생으로 잠식되고 있고요. 그나마 남은 나무들조차도 해충과 질병의 확산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답니다.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불도 나무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고요. 총체적 난국이죠.

## 생존을 위협받는 나무,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산림 복원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숲 복원 노력이 뒤따랐고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노력들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사라져가는 나무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 가지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수행하고 있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 정책입니다. 시드볼트란 식물자원 멸종에 대비한 종자영구저장시설로 자연재해, 전쟁 등의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종자를 보전하며 중복보전(Backup Copy)기능까지 가지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Baedudaegan Gloval Seed Vault: BGSV)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종자영구보존시설로 안전한 종자 보존을 위해 지하터널형 구조로 건설되었다고 하네요? 시드뱅크는 시드볼트처럼 종자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만 증식,

1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세계 각국의 야생식물종자 5,250종이 저장되어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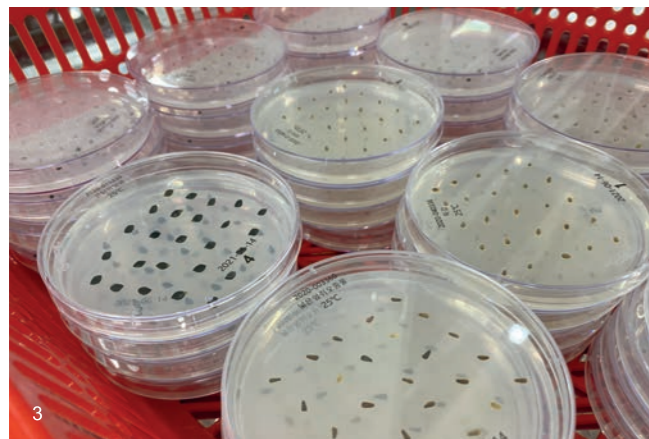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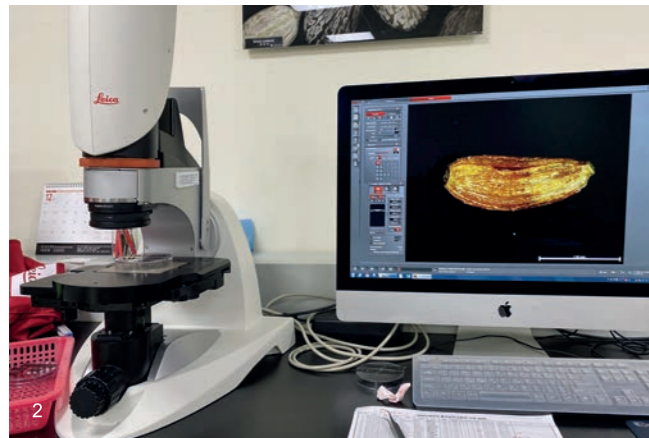
X-ray를 통해 속이 빈 종자와  
충실한 종자를 가려낸다.

3

발아율이 50% 이상이면 다음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종자로 판별한다.

4

최종적으로 선별된 종자는  
자연재해, 전쟁 등 외부 환경변화를  
피할 수 있는 지하터널형  
시드볼트에 안전하게 저장된다.



연구 및 활용, 분양 등의 목적에 따라 수시로 종자를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야생식물종의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시드볼트에 어떤 종자를 어떻게 채집하여 보관 하는지,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물자원부 '종자수집팀'인데요. 이들은 매년 3월 눈을 뚫고 개화하는 복수초를 시작으로 야생식물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누빈다. 한 종의 종자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4번 이상 같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꽃이 필 때 식물과 그 자생지를 확인하고 종자를 맺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종자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종자는 종자 망에 담아 수목원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나무별로 일련번호를 기록하는데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개체별로 지역별로 다른 유전적형질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료를 꼼꼼히 저장해둬야 추후 다른 산에 나무를 다시 심을 때 원래 나무와 비슷한 종류로 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 종자가 시드뱅크, 시드볼트에 저장되기까지

종자가 수목원에 들어오게 되면 1차 건조를 거친 후 가장 먼저 정선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생식물 종자는 재배식물과 다르게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므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선 작업을 거쳐야 하죠. 이 과정은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관찰하고 살펴 훼손되었거나 미숙하거나 오염된 종자를 걸러낸답니다.

정선과정을 마치면 천립중, 그러니까 완숙한 종자 1,000립의 무게와 총중량을 측정하고 포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천립중과 총중량을 측정하는 이유는 시드뱅크나 시드볼트에 몇립의 종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후 알루미늄 팩에 종자를 흡습제와 함께 넣고 밀봉하는데 안전한 저장을 위해 2차로 건조한 다음 습도가 15%에 맞춰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종자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온도 15℃와 습도 15% 조건이 완벽하게 맞춰져야 하거든요.

종자가 시드볼트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종자활력검정 단계입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는 X-ray 검사예요.



## 식물자원 멸종에 대비하는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

### 자연재해, 전쟁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종자를 보존합니다

속이 빈 종자는 검게, 충실한 배와 배유가 있는 종자는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충실하지 못한 종자는 폐기하거나 재정선을 통해 걸러낸답니다.  
2단계 검사는 발아 검사예요. 발아율이 50% 이상이면 다음 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종자로 판별해요. 그러나 야생식물 종자의 경우에는 발아하기 적합한 조건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3단계 검사는 테트라졸리움 검사예요. 테트라졸리움 시약을 넣어 종자의 배나 배유가 빨갛게 염색되는지를 확인하는 화학적 검사죠. 빨갛게 염색이 되면 발아는 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종자라고 판별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야생식물 종자를 무상으로 저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장된 종자가 22년, 총 5,250종의 192,625점에 이른다고 하네요? 시드볼트는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중요시설입니다.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요. 국외로부터 저장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어찌든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어 사라지는 식물이 더는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식물들이 시드볼트에 의해 굳건히 지켜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구는 모두가 손잡고 지켜내야 할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요. ☺

## 게임, 숲속 힐링을 선사하다

숲을 주제로 한 게임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최근 몇 년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임과 스트리밍의 이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중 가장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한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다양한 숲 게임들이다. 게임 스토리는 대부분 아주 간단하다. 주민들이 나무를 심거나 산림관리원이 되어 숲을 개척하고 지켜가는 게임이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바깥으로의 외출이나 여행이 허락되지 않던 시기. 숲은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 숲을 주제로 만들어진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해본다.



### 모여봐요 동물의 숲

닌텐도사에서 출시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플레이어가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나무를 심거나 가구를 만들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등 게임 속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느낌을 즐기도록 설계된 숲 게임이다. '슬로라이프'라는 컨셉에 맞게 게임 안에서는 현실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숲 생활이 주는 여유와 힐링, 자유로움이 인기 요인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한국의닌텐도



©생각두나무



### 보드게임 포레스트

국내 시장과 미국 뉴욕 토이쇼에 동시 출시되어 인기를 끌었던 포레스트 보드게임. 환경을 테마로 한 착한 보드 게임이다. 플레이어들은 모두 산림 감시원이 되어 숲에 나무를 심고 동물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숲을 지켜야 한다.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숲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앞당기는지, 이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체득할 수 있게 된다.



### 내 나무 갖기 게임 (산림청×세컨블록)

매년 식목일이 되면 산림청은 확장 가상세계 공간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내 나무 갖기 행사'를 추진한다. 블록체인 및 금융 기술(핀테크) 전문 기업인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2ndblock) 가상의 숲에 입장한 후 삽과 장갑 등을 이용해 가상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메타버스 안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 나무가 2그루 심어지는 산림복구 활동이 연결된다. 게임도 즐기고 실제 숲에 나무도 심는 뜻 깊은 이벤트성 게임이다.



©두나무

숲속우체통

김은경 대구시 달서구



〈숲을 거닐다〉를 통해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가든 어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를 포함해 제 주위 사람이 반려동물만큼이나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 또한 인생의 반려자로 긴 여정을 함께하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각박해져 가는 현대, 식물이 가진 생명력을 보면서 삶의 풍성함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영철 서울시 중구



1호선 전철을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소요산. 그래서인지 소요산이라는 역명을 자주 들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번 호에 6면을 이용하여 자세히 알려주셔서 반갑게 읽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한 겨울이지만 따뜻한 날을 선택해 소요산을 올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펼쳐준 정보로 다른 준비 없이 동두천 소요산 등산코스를 이용하여 산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철원 목포시 상동로



〈어떤 질문〉에 실린 ‘크리스마스 트리의 고향은 한국이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인 구상나무에 대한 내용이 아주 신선하고 기분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아울러 구상나무의 보존 문제도 잘 해결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밖에도 반려식물, 숲을 만나다, 한반도의 동과 서를 잇다 등 즐겁고 흥미로운 기사가 많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동석 서울시 동대문구



〈숲의 내일〉 코너에서 동서트레일 관련 기사를 보고 산과 숲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얼마 전 산림청이 조성을 시작한 동서트레일은 2026년 완성될 예정이라죠? 총 849km, 55개 노선이라니 최고의 ‘한반도 그린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숲길을 따라 동에서 서를 가로질러 트레킹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네요.

서흥희 서울시 강남구



〈숲의 미래〉 그린야크로 탄소제로 문화가 되다, 칼럼을 읽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평소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 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블랙야크 기업처럼 재활용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제로를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캠페인은 물론이고 재활용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판매점도 우리 생활 지역 가까이에 있었으면 합니다.

최영수 대구시 수성구



이번 호는 좋아하는 식물에 관한 기사가 많아서 좋았고 시각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에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숲의 발견〉 기사를 꼼꼼하게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시도를 하였으나 마음과 달리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다육이 종류만 키우고 있는데 기사를 보고 초보 식물 집사에게 적합한 식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초를 키워 볼 생각에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 숲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두 달간 산림청에 있었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5대 중점과제 추진



2023년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①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②목재이용 증진과 임가 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③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④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⑤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다.

##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 안내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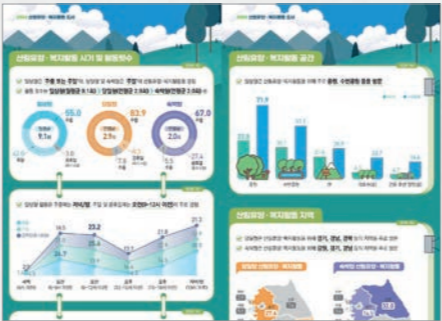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여행수요가 증가해 갈 2023년, 산림청이 전국 87곳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펴냈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지정, 관리해온 곳으로 애국가 2절에 나오는 서울 남산 소나무림(2021년 지정),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2018년 지정)이 대표적이다. 안내서에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특징과 방문 방법, 주변 관광지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 2023년 산림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녹화를 추진한지 50주년을 맞는 2023년에는 다양한 산림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도 커진다.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산자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도 확대된다. 이 밖에 ‘귀산촌 지원’과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 적용’ 등 다양한 산림 제도는 <Everyday with 산림청>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자.

## 산림휴양·복지 활동,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2022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산림에서 하는 활동이 대다수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17개 시·도 거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경험률은 숲길체험프로그램이 가장 높았고 인지도와 향후 이용의향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가장 높았다.



각각의 소식을 듣고  
숲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January + February  
2023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 중에서

다른 소리라고는 다만 스쳐가는  
조용한 바람과 숨털같은 눈송이 뿐  
아름답고 아늑고 아늑한 숲속  
그러나 내게는 지척아 할 약속이 있고  
저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저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요금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10.13 ~ 9999.12.31  
대전둔산우체국  
제40198호

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변인실 <매거진 숲> 편집부 앞

3 5 2 0 8

Glue this area and fold to cut out and use the postcard.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2023 1+2월호 독자의견

이름 \_\_\_\_\_

1.이번 호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전화 \_\_\_\_\_

2.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메일 \_\_\_\_\_

3.이번 호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는?

• 매월 말일까지 엽서 또는 이메일 (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 숲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4.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